민주 차기 당권 경쟁 조기 가시화 되나

박주선·박지원·김효석·송영길 등 잰걸음
내년 조기 전대 개최땐 당 역학구도 변화

차기 민주당 대표를 노리는 예비 주자들의 대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 대표의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지만 일부 주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일 현재 자천타천으로 당대표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주자들은 호남에서 김효석·박주선·박지원 의원, 수도권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추미애·천정배 의원, 동교동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이다. 여기에 조기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정세균 현 대표가 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차기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열띤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박주선 최고위원의 행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공개 회의석상에서 정국 대응 기조를 문제 삼아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등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차기 당권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방을 방문하며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있으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원(舊怨)을 잊고 친노진영에 손을 내밀어 '한명숙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은 아직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당 대표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자들에게 "내가 (대표) 경선에 나갈 경우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흥행은 보증한다"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아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효석 의원도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하지만, 구체적 의지와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지층 결집이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뉴민주당 플랜'을 고안하며 고공전을 통해 당권을 향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송영길 최고위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장 또는 서울시장 출마, 당 대표 경선 참여 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자전적 에세이를 펴낸 뒤 영·호남, 충청권 등 권역별로 전국 투어를 벌였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천정배 의원도 각각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논란 국면에서 강경 대응을 통해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차기 당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내년초 조기전당대회 개최 여부. 당규상 내년 7월 전당대회가 열려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조기전당대회를 열며 정국의 분위기를 이끌 경우 당내 비주류와 내년 지방선거 수도권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 대표 측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승부수를 던지듯 '신임을 묻자'며 조기전당대회를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조만간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과 함께 당내 역학구도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민에 잠긴 여야 지도부 한나라당 안상수(왼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사진은 두 원내대표가 각각 지난 주 당내회의에서 고민에 잠긴 표정. /연합뉴스

"계수소위 가동부터" "2조5천억 삭감을"

여야, 4대강 대치 격화 … 예산심의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4~15일 경제부처를 끝으로 부별 예산심사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또 한번의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수순인 계수조정소위의 구성을 놓고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천명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예결위 부별심사에 이어 곧바로 계수소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고,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야당 간사와 얼굴 붉히지 않으면서 잘 해보겠다"고 밝혀 일단 강공책보다는 설득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일단 들어와서 논의하고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는게 계수조정"이라며 "심사도 안해보고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예산심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우선 한나라당 계수소위 위원 7명을 14~15일께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의견 절충을 위해 양보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계수소위를 4대강 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관문으로 보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우선 소위 시작 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지원 비용 800억원에 대해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예산으로 채권을 발행해 수공이 진행하는 3조2천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은 보 설치와 하천 준설 등 사실상 '대운하 1단계사업'이라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해온 계속사업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조5천억원 규모의 국토부 4대강 예산 중 1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 소속 계수소위 위원 명단을 예결위에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명분을 주면 계수소위에 참여, 쟁점이 아닌 예산은 통과시킨 뒤 4대강 예산을 놓고 끝까지 대치하고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 점거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오자와 면담' 불발에 아쉬움

민주당은 13일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자 내심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달 12일 도쿄를 방문한 정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치적인 부분과는 관계 없고 개인 일정으로 대학 초청을 받아 다음달 한국에 간다"고 전했고, 민주당 측은 당시 오자와 측에 방한시 면담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대표 귀국 후 재차 면담 의사를 타진했지만 "개인적 일정이고 정치인들을 별도로 만날 계획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지난 12일 국민대 학생을 상대로한 특강에서 "과거에 있었던 한일간 불행한 일은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해야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친박연대 내년 선거 앞두고 이름 바꾼다

친박연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는 13일 "친박연대는 내년 지방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고 당세 확장에 나서려고 한다"면서 "이에 앞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당명을 개정하자는데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친박(친 박근혜)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탈당해 만든 정당이다.

친박연대는 이달 또는 내달 초 당명 개정과 관련한 공모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박연대는 당명을 개정하더라도, 당이 박 전 대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새 당명으로는 과거 박 전 대표가 2002년 초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창당해 대표를 지냈던 한국미래연합과 비슷한 '미래연합'이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